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직거래장터 매출 '깡충'

축제 5일만에 지난해 매출 초과
농특산물 우수성 경제 효과 입증
2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이벤트
농어업인 소득 증대 보탬 기대감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에서 진행된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가 평일에도 많은 관광객을 끌어 모으면서 행사장 내 운영된 '찾아가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도 매출 대박을 터뜨렸다. 축제 시작 5일 만에 지난해 축제의 전체 매출을 초과하며 강진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3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강진군의 우수 농특산물뿐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과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축제 부스 중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는 강진군 농수특산물 직거래사업단이 주관해 24개 회원사 가운데 18개 업체가 참여해, 쌀, 잡곡, 생표고버섯, 떡류 등 총 62종의 품목을 선보이고 있다. 축제 5일차인 30일까지 농특산물 매출은 2705만

2000원으로, 지난해 갈대축제의 전체 판매액인 2483만4000원을 넘어섰다.

올해 직거래장터에서는 2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검정쌀 600g을 증정하는 사은품 이벤트와 스톱워치 10초 맞추기 이벤트, 무료 시음 및 시식 행사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강진군은 이번 축제를 앞두고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강진군내 농어업인 및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강진군 농수특산물 직거래사업단' 신규회원 모집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새롭게 가입한 4개 업체가 직거래사업단에 합류해 총 24개 업체로 확대됐으며 갈대축제 직거래장터 행사에 신규 업체 중 3개 업체가 참여해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직거래 장터를 통해 앞으로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강진군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축제에서는 강진군이 진행하는 '반값관광' 혜택이 더해져, 많은 관광객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유입돼 직거래장터 매출에도 큰 힘을 실어주



지난달 26일부터 3일까지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행사장 내에 '찾아가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가 운영됐다. 강진군 제공

며 축제를 통한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또 하나의 긍정적인 사례를 만들고 있다는 평가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가 관광객들에게 강진을 알리고 주민들에게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든

든 동력이 되어주며 모두에게 긍정적인 성과를 안겨주고 있다"며 "강진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전국적으로 더욱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목포해경, 낚시어선 안전 캠페인
안전한 낚시문화 조성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지난 달 31일 낚시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목포시 북항 선착장과 영암군 삼호 소형물양장에서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3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가을철 낚시어선 성수기 이용객 증가에 따라 목포해경은 관내 항·포구 중 낚시어선 주요 출입항지인 목포시 북항과 영암군 삼호 물양장, 진도군 서망항을 캠페인 대상지로 선정했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출입항하는 낚시어선 선장과 승객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16인 이상 낚시어선에서 흡연금지, 해상 쓰레기 투기 금지, 무리한 운항금지 등 안전운항 당부, 낚시어선 사고 사례 전파 등이다. 목포해경은 캠페인에 참여한 승객들에게 캡 라이트를 배부하며 안전한 야간 낚시를 당부했다.

이밖에 낚시어선 이용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네이버 밴드' 등 SNS에 해양 안전문화 콘텐츠를 게시하며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어지는 가을철 성수기에 낚시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영농부산물 파쇄기 무상 임대 영암군농업기술센터

영암군농업기술센터가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영농부산물 파쇄기를 무상 임대한다.

3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 무상 임대는 산불 예방,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것으로 산불조심기간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맞춰 실시된다.

센터는 올해 상반기 영농부산물 파쇄기 무상 임대로 309농가에 429건의 실적을 올렸다. 그 결과 약 1000톤의 영농부산물을 분해 처리해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미세먼지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 중인 31대의 파쇄기를 임대할 농업인은 전화나 방문으로 예약하면 최대 2일간 장비를 빌릴 수 있다. 영농부산물 파쇄기 무상임대 신청과 궁금한 내용 안내는 농기계임대사업소(061-470-6618)에서 한다.

이정 영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파쇄기 무상 임대가 농가의 영농부산물 처리에 보탬이 되도록 임대 제도를 잘 운영하겠다.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파쇄기를 이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신안군, 지도향교 지원 조례 제정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목표

신안군은 김혁성 의원이 지도향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발의한 조례는 △강학(講學)·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등 전통문화예술교육사업 △향교와 관련된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성년례 등 관혼상제 전통의례사업 △강학·전통문화예술·전통예절·전통의례 강사 등 인력양성사업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환경 정비 관련 사업 등이다.

전남도 문화재자료 제111호로 지정된 지도향교는 1897년 조선시대 국립교육기관으로 지방유림들의 수양과 유교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지어졌으며 현재 춘·추계 석전제제를 지내고 있다.

대표발의한 김혁성의원은 "지도 향교는 도내 몇 안되는 향교로서 옛 지도의 위상을 나타내고 있어 선조들의 정신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신안=홍일갑 기자

강진군, 산불 '제로화' 총력 대응 내달 15일까지 산불대책본부 운영

강진군은 2024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산불 '제로화'를 목표로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산불조심기간 동안 강진군은 진화대 12명과 감시원 38명을 투입해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군은 산불위험이 높은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 소각과 입산을 철저히 통제하며 산불감시원 38명을 산불 위험지역에 상시 배치하고 드론과 CCTV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감시활동을 할 계획이다.

진화대 12명은 출동 대기 상태로 유지되며, 진화장비와 차량은 사전 점검을 통해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췄다.

강진=김윤복 기자



강진군 제2기 자원봉사대학 수강생들이 관내 안전·위생 취약가구를 위한 청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제2기 자원봉사대학, 자원봉사 현장실습

강진군이 지난달 30일 제2기 자원봉사대학 수강생들과 함께 지역 내 안전·위생 취약가구를 위한 청소 봉사활동을 가졌다.

3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청소 봉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

으며 강진군 주민복지과 직원들과 자원봉사대학 수강생을 포함해 20여명이 주거 환경 개선에 참여했다. 이들은 거주 환경이 열악한 대상자 가구를 방문해, 집안 꼭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쓰레기와 폐기물을 치우고 정리하며 쾌적한 환경을 지

원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봉사활동 현장에서는 강진군 윤미경 주민복지과장이 직접 방문해 격려의 뜻을 전하며 봉사활동에 함께 나선 제2기 자원봉사대학생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미경 주민복지과장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나눔이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되고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신안군, 대한민국 분재 대전 연다

분재 교실, 소품 페어전 등 마련

신안군은 1004섬 분재공원에서 오는 8일부터 10일간 '2024 대한민국 분재 대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전은 신안군 분재정원에서 보유한 작품 200여점과 분재 애호가들의 작품 200여점 등 총 500여점을 선보임으로써 분재에 대한 지식 교류와 분재 예술의 아름다움, 수준 높은 기술을 한자리에서 선보일 전망이다.

이 밖에도 신안군 특별전, 분재 조경수

특별전을 같이 진행해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분재 교실, 소품 페어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해 분재에 대한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예정이다.

올해 행사는 미주분재연맹 회장이자 세계분재우호연맹(WBFF) 부회장인 잭 서스틱(Jack Sustic)을 포함한 미국 분재연합회 임원 13명이 참석한다.

서스틱 회장은 과거 미국에서 열린 세계분재대전에서 조직위원장을 맡았으며,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분재 문화 확산

에 기여해 온 분재계의 주요 인물로서 그의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분재 대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 분재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스틱 회장의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에도 신안군 분재정원을 방문해 "1004섬 분재정원보다 아름다운 분재원을 본 적이 없다"며 "신안군의 세계분재대회 개최에 힘을 보태고, 한국의 분재문화를 세계에 알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대전이 분재 예술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 교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QR code and text: 전남일보 구독 www.jnilbo.com

신안=홍일갑 기자